

# 안녕하세요. [김현중 T입니다.]

오늘은 [ ❶ 번째 ] 시 문학 분석으로 다가갑니다.

이 시문학 분석은 역시 1등급 학생들은 패스하시고  
어설픈 2등급과 3-5등급 이하 친구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그 친구들 중에 난생 처음 보는 시를 만났을 때....  
시간은 얼마 없는데....시 해석이 안 될 때....  
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  
그저 무작정 외우면 되는 줄 알고, 외우는데 시간 다 보내고...  
누구 누구 인강이 최고라는 타인의 추천만 믿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표류의 시간을 보내는 3-5등급을 위한 것입니다.

작년 재수종합반에서 제가 가르치던  
EBS 분석노트를 모시고 인강 누구 누구를 교주처럼 여기며  
두 주먹 꼭 쥐고... 국어는 무조건 1등급이라고 외쳤던...  
모든 수업은 무시하고 자기만의 방법과 고집만으로 해내겠다던...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된다....그렇게 말렸는데도....  
(결과는 아주 높은 5등급...)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쓰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렵니다.

읽다보면 지루하겠지만...그래도 이 글로 인해 문학의 두려움에서 벗  
어날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힘을 내 봅시다 !!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이나 쪽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학 칼럼 제목은

### [문학을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는 3-5등급 독학생 탈출기 시리즈]

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를 만나거나 난생 처음 보는 시를 만나거나 수능 시험장에서는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때 수능 시험지에서 모르는 시를 만났다면 당연히 찍어야 하겠죠.

그러면 역으로.... **알고 있는 시를 만나면 다 맞을 까요 ?**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답을 틀린다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는 것을 틀린다면 안타깝거나 아프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뭐...사연은 수십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말한다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 Q. 문학이 약한 친구들은 진짜 문학이 뭔지 알고 접근하는 것일까 ?

= 대부분 학생들에게 문학에는 무엇이 있니 ?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80%이상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라고 답합니다. 또 나머지는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이라고 답하고요... 아주 더러는 시와 소설이라고 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이 부류는 대책이 없습니다. 극문학은 뭐고 수필문학은 뭐니 ? 라고 물으면 고개라도 숙여야 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몇 달을 노려봅니다. 반성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늘 반전과 보복만 생각함...ㅋㅋ)

= 솔직히 100명의 학생 중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말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늘 틀에 박힌 고전과 현대문학.... 선생님들 중에도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고전문학이다.... 또 문과는 고전문법도 공부해야 하는 거 알지 ?..... 이러면 아이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날밤부터 인터넷에 인강 강사 품평회가 열립니다. 또 그 사이에 그 품평을 사고파는 사람들도 있죠...(썩썩..)

=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대기준으로 나누는 것이고 길이의 차이로 나누는 것이지만 그것은 역시 수능 출제 원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만

나게 됩니다. **출제위원들이 늘 하는 말....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 여기서 우리는 문학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서정문학과 서사문학..... 이것의 정확한 개념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시나 소설같은 문학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 문학

1. 서정문학 = 정서를 서술한 글 =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글로 나타낸 것  
= 대표적인 장르로 시문학, 수필문학...

2. 서사문학 = 사건을 서술한 글 = 인물들이 일으키는 사건(갈등)을 글로 나타낸 것  
= 대표적인 장르로 소설문학, 극(희곡)문학, 시나리오, 수필문학...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 두 개의 분류에서 선생님은 문학 수업을 2~3주에 끝냅니다.  
그 다음은 체계를 갖추었으니 충분한 연습과 가치 있는 경험치를 누적시키는 것이죠.

수업 첫 시간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시가 무엇인가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정문학이  
뭔지 설명합니다. 대화체로 해볼게요...

= 애들아. 서정문학은 어떤 대상에 대한 느낌을 적은 글이다.... 그러니까... 여기 김태희  
사진이 있다. (송지효, 한혜진...등등..= 가정이니까 토달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 사람들  
을 대상으로 시를 쓰라면 이렇게 쓸 거 같아....

= 너를 보니 / 가슴속이 시원해지고, 어두웠던 내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아....

= 대충 이렇다고 칩시다... 여기서 (너=대상=김태희)이고 시원해진다...환해진다... 이것이  
바로 대상으로부터 느낀 감정 즉 정서입니다. 우습고 초딩 수준이지만 충분히 문학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그 대상인 김태희를 나이 32세, 이름 김태희...고등, 대학 어디.... 이렇게 썼다면  
그것은 감정이 전혀 없는 비문학이 됩니다.(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거나 주장만 하  
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김태희에 대해 느낀 감정을 서술한 저 수준 낮은 한 두 문장  
이 과장해서 말하면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라는 것이죠...

= 여기서 문학을 접하는 우리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정문학에는 분명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들어 있을 것이다. 분명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 그것을 찾아야 한다.... 분명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 그것을 찾아야 한다.... 분명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 그것을 찾아야 한다.... 분명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 그것을 찾아야 한다....

이 정도 설명이면 여러분...!! 문학이 뭔지 몰랐던 사람도 서정문학에 대해서만은 최소한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난생 처음 만난 시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2분 30초 안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나 자습서를 외우려고 하고 밀줄 그을 시간에 대상을 찾고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찾아 동그라미만 쳐도 무조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21년간 검증된 선생님을 한 번 믿고 따라 오시겠습니까 ?

**자 한번 외치고 갑시다.**

= 난생 처음 보는 시를 만나면 ?.... 봤어도 가물가물한 시라면?... 시가 어렵다고 느껴진다 해도....

= 주어진 시간 내로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시문학에서 무엇을 찾는다....?

= 네, 선생님 ..... 바로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 더 크게 외쳐보란 말이다.....!!!!

=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

= 시에서 대상을 왜 찾아야 하는 건데 ?

= 넵 !!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되는 거냐고 ?**

= 넵 !! 그 감정을 찾아 표시하고 가면 됩니다.

= 그런데 선생님 !!!!!!!

= 정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 느낌만 찾으면 됩니까 ?

그것만 찾고 문제로 넘어간다는 것이 왠지 짹짹합니다.

이 시인은 일제 강점기때.... 민주화를 짓밟은 군부독재  
때.... 이런 내용을 알아야 시를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 2번 얘기 안한다 !! 시간 내로...그것만 찾으면 된다 !!**

**= 고개 가우뚱 하지 말고 무조건 대상과 감정만 찾으라  
고....절대 짹 짓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시간도  
없는데 무슨 생각하냐 ? ....출제자도 읽는 시간과 대상  
찾는 시간 정도밖에는 안 준다.... 더 안준다고....!!!**

= 선생님 !! 질문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시인의 배경과  
경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두터운 정리 해설을 나누어  
주셨는데, 또 연계시라 하시면서 기본적인 상징어들과  
20년대 ~ 80년대 시대상황에 대한 주제별 분류표까지 주  
셨습니다. 게다가 수능에 나올 만한 시라 하시면서 170

여편의 시를 총정리해주셨습니다. 전 이것을 보고 감동  
에 감동쓰나미를 먹었습니다. ..퍽 !! 팍 !!!..푹 !!

(그 뒤로... 그 친구는 보이지 않았다. 뒤에 들은 얘기지  
만 그 170쪽 프린트는 가슴에 품고만 있다가 땀에 젖어  
서 그의 어머니가 쓰레긴줄 알고 버렸다는 풍문이 있음.)

= 너 .... 그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해... 여기서는 시인이  
누군지 몰라도 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몰라도 되고,  
경향?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던 국어선생인 나  
도 그 시인의 경향이 뭔지 몰라....주어진 2분 30초안에  
뭘 그리도 할 일이 많고 생각이 많니 ?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를 만나면 뭘 찾는다 ? ....뭘?

= 겁먹은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 넵 선생님...대상을 찾습니다.

가끔 용기를 내는 친구들도 있죠...

= 선생님...또 질문있습니다. 오메르까비? 라는 커뮤니티  
에서 어떤 멘토라 자칭하는 형이 국어 100점 맞았다고  
하면서 시는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라고 하던데요 ? ...

= 그래...그 형이 전공이 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 ....

나도 국어공부 수십년 동안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 ?  
넌 그말 듣고 반년동안 그렇게 공부했고 ???.....

= 넵! 우리의 영원한 멘토인 그 형은 아프리대 전기물리  
고통과를 전공하십니다.

**퍽 !! 팍 !! 푹 !!**

(그 뒤로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풍문에 고통에 대한  
시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가끔 바람을 통해 들려옴.)

**다시 외치고 갑시다....!!!**

**시를 만나면 무엇을 찾는다 ?**

= 네... 대상을 찾습니다.

**대상을 찾아서 우린 뭘 해야 한다 ?**

= 네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 그것만 찾고 문제로 바로 넘  
어가야지?...??**

= 네 맞습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갑니다. 더 찾을 시간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 배운겁니다....

**정리하고 또 갑시다....!!!**

**시를 만나면 ? = 대상을 찾아라...!**

**그리고 ? = 정서를 찾아라....!**



자 이제 구체적인 공부를 해봅시다.

2015학년도 기출로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절대로 공식이 아니라 서정문학의 원칙으로 푸는 것이고

출제자는 서정문학의 원리에서 출제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문학은 고전, 현대 문학이 아닙니다. (수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수능 출제 원리를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

**Q.** 이제 서정문학이 뭔지는 알았다...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

2015 A형 기출

(가)

해사살 피어

이윽한\* 후,

머흠 머흠

골을 읊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어느 인강 강사의 수업버전= (우리 학원 아이 PMP강의 시청함)**

= 여러분. 이 시는 정지용 시인의 조찬(朝餐)이라는 시입니다. 조찬이라는 것은 아침밥입니다. 또 그 분의 시로 유명한 시는 출제 예상이 아주 높은 시로 고향, 향수, 유리창, 등등이 있다... 뭐 이 분 시가 나오리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가(내가...내가...내가...) 찍었던 거고... 하여튼 이 시는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가 깔려있다고 봐야겠지.... 정지용 시인에 대해 일장 연설...

(증조 뻘인 정지용 시인과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지용을 너무 잘 앓)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색연필로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필기하고 있음.)

= 시인은 말이지 ... 아침밥을 먹으며.. 의로운 일을 해야겠다...일제 폭력이 심해지니까 꽃봉오리를 마주하는 시인의 시선에서 의로움이 일어나고....(아..토 나온다...정말...)



- =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더러운 것들을 씻어 내고 싶었던 시인의 속마음...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들의 고뇌와 한계가 이 아침밥에 녹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아야.....
- = 자 필기하세요. 칠판에 적지는 않을게.... 1941년 문장에 발표된 시이고... 자유시 서정시이며 현실에 대항할 힘이 없는 시인의 나약함이 서럽게 느껴짐을 토로한 시라고 .....
- =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
- 내가 시문학이 뭔지를 아는 학생이라면 저거 바로 덮어버린다....

2015 A형 기출


(가)  
 해사살 피여  
 이윽한\* 후,  
  
 머물 머물  
 골을 옮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이제 선생님 버전입니다.

- = 애들아... 주어진 시간 2분 30초 내로 우리는 뭘 찾는다...?
- = **대상을 찾습니다. !!!**
- = 그래 이 시의 대상은 뭐지 ?
- = ~~선생님... 이 시는 정지용 시인의 조찬이라는 시인데, 정지용 시인은 ...퍽!!팍!!푸욱!!~~  
 (아시죠...결말을? 자 이제 이런 친구는모두 제거되었습니다.)
- = **1-2행을 보니까 시적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햇살밖에 없는 거 같아요...**
- = 오케이...바로 햇살을 보고 있다....
- = **그리고 정서는 햇살에 대한 어떤 느낌같은 게 없는 거 같아요....**
- = 오케이.... 완전 굿이다.... 아직 정서는 없다... 오케이 굿굿굿 !!!
- = **3-4행을 보니 이번에는 구름을 보고 있는데 역시 정서는 없습니다.**
- = 음..쪽쪽쪽(뽀뽀뽀)... 오케이 굿이다.... 빨리 빨리 넘어가자... 출제자가 원하는 거야...
- = **5-6행을 보니까 도라지 꽃봉오리... 역시 정서는 없습니다.**

= 너무 좋다... 너네 완전 cut이야....~~~~ (너무 방정맞죠?...실제는 이렇게 안합니다. ㅋ)

차돌부리  
축 축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갈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정지용, 「조찬(朝餐)」 -

= 7-8행을 보니 화자가 길에 돌부리를 보고 있는데 그 돌부리가 숲에 죽순 돋아나 있는 것 같다고만 할 뿐 .....역시 감정 없습니다...

= 오케이 와우....

= 9-10행을 보니 어디선가 물소리 들리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이가 시리다는 감각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정서라고 봐야 하나요 ?.... 하여튼 그렇습니다.

= 오케이 질문 cut이다. 너희들 추운 겨울에 속옷 입고 창문 열어봐봐... 온 몸이 시리고 이기 시리고... 좋아 ?.... 안좋지 ?..... 지금 시적화자는 차가운 물소리가 소름이 끼치는 거야....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물소리는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을 말하고 가고 있어... 직접 말하지 않으니까 시는 상징적, 함축적이 되는거야...

= 또 11-12행을 보니 해석이 잘 안됩니다. 앉음새 갈히여....가 해석이 안되는데 ...여기서 솔직히 막힙니다. .... 선생님 ....이래서 배경지식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

= 애야... 선생님도 해석이 안된단다..... 이젠 됐니 ?.... 수능 출제자가 그 부분을 가지고 너랑 시름할 시간이 없단다.... 중요한 거 알려줄게.... 저런 것을 해석하라고 시 문제를 내는게 아니란다.... 그러니 해석이 안되는 것은 빨리 건너가렴...

= 선생님.... 해석이 안되는 거 건너가면...고전시가는 90%가 해석이 안되는데...그것도 건너가요 ?

= 당연하지.... 고전문학 건너가는 법 알려줄게....그러니 오늘은 이것 열심히 하자꾸나...

=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하여튼 12행은 햇빛 속에 쪼그리고 앉는 건데 ... 정서는 없습니다.

= 오우 완전 굿이야...너무 좋다...

= 13-14행을 보니 서러운 새 밥알을 쫓는다...인데...이것도 해석이 안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 그래 그것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시적화자의 정서가 노출된 것이다. 시적화자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줄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서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고?...이것은 감정이입이라고 해.... 내가 슬프면 내 옆에 컴퓨터도 슬퍼 보이고, 창문도 슬퍼보이고...다 슬퍼보이는 거야.... 기쁘면?... 반대도 마찬가지지....

= 자 봐봐.. 저 새는 서러운 새고 그럼 여기 새는 행복한 새냐 ?..... 그럼 저기 날아가는 새는 화난 새냐 ?.... 지금 우리 창가에 있는 저 새는 미친새냐 ?...네가 그걸 알아 ?... 모르지...당연히.... 그러니 내가 기쁘면....즐거운 새가 날아다니는 것이고....내가 슬프면 외로운 새 한 마리가 슬프다 울며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거야....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대학 간 네 친구가 그것을 보면 뭐라 하겠니 ?.... 개한테는 저 새는 기쁜 새야.... 합격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은 기쁨을 품고 고향으로 날아가는 새..... 이해되지 ?

= 네 선생님 ....그러면 대상은 햇살, 구름, 꽃봉오리, 돌부리, 물소리, 쪼그리고 앉은 자신, 새.... 이렇게 인가요 ?

=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연을 보면 쪼그리고 앉은 모습은 자기 모습일 것이고 그 모습이 바로 서러운 새가 되는 것이니 즉 자기자신 = 서러운 새...이런 유추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단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글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고 그런 자신에 대해 느끼는 정서는 웬지 서럽고 이가 시릴정도로 부정적이라는 것이지....

= 선생님 거기까지는 저희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제 어떡하지요 ?

= 뭘 어떡해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거지.....

= 저 ... 시인에 대해서... 경향에 대해서.... 필기할 내용이라도... 펑파푸옥!!!

이제 (나)글로 가자...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 애들아....이 글은 첫줄에서 모두 끝났다....!! 대상이 뭐니 ?

= 파초입니다. 그리고 첫줄에서 좋다라고 하네요.... 정서는 그럼 좋다? 입니까 ?

= 끝....!!! 자 문제로 가자.... (물론 끝까지 읽어봐야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다 알죠 ?)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제를 보면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 여러분은 시를 써본 적도 없고, 분석해 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랍니다.

=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 이 시를 분석한 어떤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옆에서 보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번 아저씨가 틀린말을 하는지 안하는지.... 3번 아저씨가 터무니 없는 설명을 하는지 안하는지... OX만 해주면 됩니다.

\*\*\*\*\*

자 여기서 여러분은 비문학과 문학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비문학은 여러분의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출제자가 여러분에게 직접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비문학에도 OX문제가 많습니다. 즉 OX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보는 것으로서 .....

우리가 시험보는 이름이 바로 수학 능력 시험.... 즉 능력시험입니다.

문학은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다운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설명하고 평가하고 분석, 이해하는 전문가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 옆에서 여러분은 OX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학 문제는 100% 바로 OX문제입니다.

수능 출제 원칙입니다. 조금만 관심가지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구별이 되는 것이고, 국문학 전공과 국어교육 전공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국어교육은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국어 국문학을 수준별, 레벨별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차이가 큼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마침...

\*\*\*\*\*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문학 문제는 항상 끊어 읽으세요..... 다음 처럼요...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 먼저 경치를 말하고 그 경치에 대해 정서를 읊은 것을 선경후정이라고 합니다. 선경후정

이라는 단어에서도 역시 정서가 나오죠 ? 그 만큼 시문학은 바로 정서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 대상은 햇살, 구름, 꽃봉오리, 돌부리, 물소리, 쪼그리고 앉은 자신, 새....

= 선경후정 사용한 거 맞죠 ? ....그러면 나머지...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그리고 막판에 서러운 새로 정서 표출.... 더 설명해야 하나요 ?...아니요

= ①번 아저씨는 ok입니다.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 역시 ok입니다. / 눈으로 보더라도 형태가 통일되어 보입니다.

= ②번 아저씨는 ok입니다.

③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2연 마무리가 구름. .... 명사로 연을 마무리... = 여기까지 오케이입니다.

= [웁기는]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정적인 모습과는 맞지 않네요... 틀렸네...

= ③번 아저씨는 나가주세요..... 답입니다.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2연과 3연만 보세요... 제발 끊어 읽으세요.... 복합질문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당하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끊어 읽으면 될 것을 동시에 같이 보니까... 눈이 돌아가서 틀리는 것입니다.

= 2연은 구름입니다. 3연은 꽃봉오리이고요.... 당근 원경에서 근경...

= ④번 아저씨는 ok입니다.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 4연에서 비유적 표현 (직유, 은유, 의인, 활유, 풍류 = 이 5 가지를 비유라고 합니다.)

= 4연 보니까 죽순 돋듯... (직유).... 돌아나는 것이니까 정적이냐 ? 동적이냐 ?...

= ⑤번 아저씨는 ok입니다.

=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배경지식이나 시인이나 경향이나 이런 거 알고 풀어야 하나요 ?

3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비교도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문학은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 여러분은 옆에서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해주면 됩니다.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OX문제는 반드시 끊어 읽으세요....

=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청각으로 시작해서 촉각으로 끝났다... 자..청각의 촉각화입니다. .... 가슴에 비가 뿌리되... 서늘함.... 시각으로 출발해서 촉각으로 끝났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반대로 표현했음.... ①번 아저씨 아웃...

②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또 끊어 읽으라고 쉽표도 있네.... 그런데 구름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정서가 아예 없는데.... / 그리고 폭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주는 비를 기다리는 것.....②번 아저씨도 아웃...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물소리...청각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서늘하다라는 정서를 자극...오케이..

= 빗소리...방에서 빗소리를 듣고 있다... 당연히 가슴으로 쏟아지는 느낌인데 방에 있으니 옷은 젖지 않는 느낌... 소리가 시원한 정서를 자극...

= 오케이... 답입니다.

④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서늘함인 물소리와 화자가 공통점 ?....어디를 봐서 그런 추측 ?...

= 오히려 다른 파초와는 다른 특징...차이점이다...

= ④번 아저씨 아웃...

㉔ ㉕은 화자가, ㉖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 물소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미래기대 ? = '나'가 고통인 상황이라고 ?....생략...!!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이문제는 거의 3점짜리 문제 유형이죠...

= 이 문제 다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 되는데... 일주일 안에 3점짜리 다 맞추면 순간적으로 20점 정도 올라갑니다. 특히 5등급 친구들....

= 감상은 독자에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독자에게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3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우선 목적어를 (가), (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보기 선지에 가서 주어가 됩니다.

### ㉔ \_\_\_\_\_ / 이 부분에서 (가) 또는 (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면 (가, 나) 둘 다 나옵니다.

### 그리고 ㉕ \_\_\_\_\_ / ~~~~~ 이 꺾쇠부분에서 보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 그렇게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모두 맞을 경우 지나가면 됩니다만 분명 저 두 곳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 기>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지용은 「조찬」 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이태준은 「파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㉔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㉕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 위에서 말한 목적어 (가) 부분입니다. 쉽게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빨리 지나감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이 밑줄은 분명 보기에서 와야 합니다. 볼까요... 4째줄에 보면 자연은 ~인해 좌절되는 공간이라고 했죠? 여기서 2-3줄을 보면 자연이 초월적 세계라고 했는데... 결국은 넘지 못하는 좌절의 공간이니까 (다시 앞부분) 서러움의 정서와 연결된다고 보는 감상은 타당한 것입니다.

② (나)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 역시 목적어 부분 (나)의 부분입니다. 본문에 나옵니다. 또 빨리 지나갑니다.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보기 박스에서 끝에서 2째줄... 자연은 그에게서 속물적인 거리를 두게 만드는 대상이다... 이 부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감상은 타당한 것입니다.

③ (가)의 화자는

= 역시 목적어 부분 (가)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 보기 박스 끝에서 3째줄을 보면.... 자연물과의 교감 나오죠.... 이렇게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타당한 것입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나)의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 역시 목적어 부분 (나)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 보기 박스 끝에서 3째줄을 보면.... 자연물과의 교감 나오죠.... 이렇게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타당한 것입니다.

④ (가)의 '흰 밥알'은

= 역시 목적어 부분 (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 위에서 4째줄을 보면 현실의 번뇌와 억압...

(나)의 '챙'은

= 역시 목적어 부분 (나)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군.

= 벗어난다는 얘기는 보기 박스 어디에도 없습니다. .... 답이죠 ?

⑤ (가)에서 풍경 묘사는

= 말하지 않아도 자연물 배열.....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 보기 박스에도 나옵니다. 꺾입니다.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 본문에 그렇게 당연히 나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죠... 본문이니까...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보기 박스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다... 한 시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

자 하여튼...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은...

시를 외워서 공부하는 친구들....

시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지를 모르는 친구들...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하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결국 차가운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시문학 분석 칼럼을 써보았습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생소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원칙대로 공부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난생처음 보는 고전시가 어떻게 해결하나 ? .... 에 대해 살펴봅시다.

# 체계를 갖추는 것 !!

# 때론 느려 보이지만 역시 가장 빠른 것 !!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었다면 댓글파티좀 열어주세요... 아니면 욕은 하지 마시고요...추천도 꾸욱 눌러주세요... 반론제기는 속으로만 하세요...